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해남군
- 슈빌리지역아동센터



2018. 8

김*현

이화봉사단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 같이 먹고 자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활동을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친구들까지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기에 저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규칙과 순서를 하나 하나 다 정해야한다는 점이 생소했지만 조원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진행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친구들끼리 싸운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최대한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이끌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맑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장기간 체류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처음이라서 봉사 출발 며칠 전부터 설렘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잘 끝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저희 봉사단을 반겨주었고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장시간의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첫날엔 조금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오일동안 게임,연극,만들기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색함의 기류는 금세 사라지고 같이 장난을 치며 서서히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친남동생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어렸을 적 소원이었던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봉사단과 아이들이 각자 소감을 나누고 단체 사진을 찍고 헤어졌는데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참다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첫번째이자 마지막 이화 봉사단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주빌리지역 아동센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화봉사단 봉사를 참여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전에 ‘5일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될까’, ‘활동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지만,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시간은 빠르고 알차게 지나갔다. 첫날 센터장님과 차를 타며 이동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졌으면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이 얼마나 비관적이길래 이런 고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센터아이들을 만났다. 물론 낯설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처음의 인상과는 달리 따뜻하게 반겨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흥미는 떨어지지만 참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또한 그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고학년 학생들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준 탓에 저학년 학생들까지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핸드폰 없는 쉬는 시간에 ‘묵찌빠’, ‘ABC’ ‘마피아 게임’과 같은 고전 게임을 하면서 각자 핸드폰을 하고 싶은데 그 욕구를 참아가며 주어진 환경에서 모두와 어울려 노는 모습에서도 인상이 깊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써준 선생님들의 롤링페이퍼에서 ‘5일 동안 놀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오히려 나와 5일 동안 재미있게 놀아준 친구들이 학생들이었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 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시골아이들만의 특성(?)을 도시아이들과 비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빌리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여리고 맑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비록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느낀 점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본인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겉으로 티가 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한 것이다. 학원과의 거리도 멀고,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하교 후 사회적인 장과 교육의 장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체험하고 센터장님에게 그와 관련된 고충을 들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였다.

유*진

이화봉사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을 처음 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기까지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100 여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센터장님으로부터 듣게 되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및 교육 봉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동시에 아동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크게 느꼈습니다. 더불어 봉사자들과 함께 수업활동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해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심 및 소통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었고, 각기 다른 봉사자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도 마주할 수 있으며, 아이들로부터 배워나갈 점도 항상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봉사활동은 일방적으로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받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

우선 농촌지역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의 교육환경 격차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도시의 아이들도 결코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의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져 씁쓸하였다. 봉사하는 시간동안 큰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 대해 관찰해보았다. 인상적이었던 일화로 감정퀴즈 시간에 부드러운 감정이라며 해파리를 표현한 아이가 있었는데 옆에서 너무 창의적이고 만물기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자신의 작품을 센터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전날 포토카드 만들기 활동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못하다가 다음날 짝궁의 개성 활동에서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또한 한 아이에게는 계속 다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 해주니 친구와 다툰 후 먼저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았다.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